01/30
2022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1 부 중보기도 : 중보팀 (7:30am~8:30am)

2 부 중보기도 : 엘리사벳 권사회 (9:20am~10:20am)

3 부 중보기도 : 중보팀 (11:30am~13:00pm)

4 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사명, 최고의 길"

본문: 행 20:32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1.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빛 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죄인들을 구속하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3. 지난 한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거룩하기를 다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흠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흠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옵시고 주의 사랑의 옷깃으로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4.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받은 자 살아날 것이며, 성령에 충만한 자 능력을 행할 것이며, 성령과 동행하는 자 주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시들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5. 예배에 참석하신 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믿음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2022 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6. 새해 모든 중보기도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아비의 눈물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빛으로 무장시키셔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 엎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 부: 천상욱목사, 2 & 3 부: 김대규목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열어 기름부으시고 모든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 찬양할 때, 모든 묶임과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하옵시고 참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장영식목사, 김현철목사, 김홍원목사)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3. 대표 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유병하장로, 조재훈장로, 백영선장로)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벧후 1:10]

1.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대섭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실 때에 모두가 각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 이 시간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부드러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목마른 영원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든 영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사 영원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함을 기쁘게 하옵소서.
3. 김대섭 목사님과 새로 개척하시는 코로나 은혜교회를 축복합니다. 김목사님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목회와 목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설교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영력과 영감과 권능의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4. 담임 한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사랑과 헌신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5. 담임 목사님에게 천상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팬데믹 시대를 적절히 대응하며 깨어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고 제사장적 중보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6.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고 돕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B.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 믿음의 반석에 서서 꿈을 꾸고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 땅에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 사도 바울처럼 사명 따라 살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아!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찌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찌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찌어다" [대상16:29]

1) 만물의 주인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하옵소서.
2)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마무리를 위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3) 성도들의 기업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며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4)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5)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미국을 위한 기도

참조: Jama Prayer, Christian post

1. 2022 년 새해,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 [행 13:22]

2. 주여,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성령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한 부흥의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3. 금년에 있을 낙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1973 년에 6 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한 Roe v. Wade 판결이 무효화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4.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계속 창궐하는 팬데믹을 통해서 미국과 세계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힘있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에 부흥의 새바람이 불게하옵소서.

5. 금년 11 월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 그리고 한국의 3 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리더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교회 사역

성도 양육과정 개강(2/2)
공동의회 및 부서장 모임 (2/6)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Rev. Han's Love letter

함께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번 주간도 일천번제 새벽예배 드리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계획된 사역들을 최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교단 노회 목회자 준비위한 모임, 화요일에는 교역자 예배, 시 관계로 플러턴 시의원들 만남, 목자 부흥의 밤, 아론과 훌 기도 용사의 밤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에는 사업체 심방, 목요일에는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는 미주복음방송 이사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 환자들은 전화 심방으로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 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예배 때마다 안수기도를 받기 원하는 분들을 직접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행정팀장으로 사역하시던 김대섭목사님이 교회개척을 위해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코로나 지역에 코로나 은혜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 교회 지교회로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선교하는 모델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셔서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귀한 교회가 잘 세워져서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김상대 목사님 H.D 은혜교회 담임목사 취임식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가서 취임식 예배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H.D 는 High Desert 의 약자로 랑카스타, 팜데일, 바스토우, 필랜, 빅토빌, 헤스페리아, 애플밸리, 루손밸리, 아델란토 등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큰 부흥을 꿈꾸며 선교하는 우리 은혜 교회 지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장로님들로 당회가 구성된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귀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시도록 기도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성도 양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 목사 드림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더욱이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길만이 정말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교회의 그룹 제 1 세대 지도자들은 허리가 휘도록 힘겹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힘들게 느낄 것을 모르고 여러분에게 이 일들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 길만이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길이기때문에 한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고 힘겹게 학교에서 돌아오는 초등학교 학생인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는 공부가 힘들다고, 숙제가 많다고 투덜거리는 어린아이의 사정을 마음아파 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목자는 "그래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지!"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어려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살다가 벗어버릴 육신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인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다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들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도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필요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귀한 사명을 감당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희생을 무릅쓰는 노력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셔서 이용하시며, 또한 양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종
김광신 목사 드림.